

석유산업과 석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석유협회 주최의 석유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유업계의 「높은 목소리」는 정부의 석유정책에 대한 일대 방향전환을 촉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주도·자율화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석유산업만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石油事業法에 의해 생산·

石油産業의 환경변화와 石油政策의 방향전환

유통·가격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것이 석유산업의 韓國的 특색이다. 석유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와같은 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정부의 관리규제가 석유산업의 창의와 기업성을 약화시킨 폐단도 없지 않았다. 이제는 급변하는 석유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석유산업 자체의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되어온 정유업계의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그 「강도높은 소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최근의 국제석유정세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격변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低油價시대를 맞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석유산업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석유소비구조는 점차 輕質化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은 아직도 Topping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脫黃시설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제시설의 과잉과 석유수급의 적정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0년 이후 국내精油 5社 석유부문의 6년간 누적이익은 총 3백 2 억원에 그쳐 연평균 50억원이라는 저조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精油 5社의 평균권이익 50 억원은 자기자본이익률 2.0%로 현행 정기에금금리수준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가격관리상 기준이 되고 있는 허용자기자본이익률 10%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국제원유가격 상승및 환율상승등 국내油價인상요인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국내油價의 인위적인 왜곡은 수요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 油價의 정부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부문비용이 과도해짐에 따라 국제가격에 비해 에너지源間 상대가격체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에너지 및 자본의 배분효율이 저하됨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추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내외 경쟁력과 기업성장의 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精油産業의 장기간의 저수익성은 결국 현재에 와서 석유산업의 구조개선과 시설고도화를 위한 투자소요를 일시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에너지절약기술

이나 新에너지개발등의 연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정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유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선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축성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日本에서 진행중인 석유정책 흐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日本通産省은 지난 62년에 제정된 石油業法을 기초로 한 정부규제 위주의 석유정책에서 탈피, 시장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방

石油수요구조의 輕質化 추이

(단위 :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추정)	1981~1986 연증가율%
L P G	2.8	4.0	5.2	6.3	7.3	8.4	28.3
輕 質 溜 分	14.8	13.8	14.9	16.1	17.4	18.6	7.5
中 間 溜 分	30.0	31.3	32.4	34.8	36.0	37.1	7.1
重 質 溜 分	52.4	50.9	47.5	42.8	39.3	35.9	(4.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
全 國 需 要 (천B/D)	499.3	497.2	524.1	531.6	533.0	568.8	2.7

선진국의 고도설비능력 현황(1984)

(단위 : 천B/D)

	常壓정제	重 質 油 分 해 시 설				脫黃시설
		접촉분해	열분해	수소화분해	분해능력비%*	
西 欧	16,038	1,586	1,469	212	16.4	
이탈리아	2,935	270	288	48	16.4	387
프랑스	2,400	278	132	13	15.2	285
西 獨	2,135	192	286	79	20.2	419
英 國	1,988	341	106	40	22.3	114
北 美	17,700	6,323	1,793	1,028	47.6	
美 國	15,900	5,900	1,740	920	49.4	
캐나다	1,800	423	53	98	31.1	9
亞·태평양	5,234	625	90	34	13.6	
日 本	4,440	450	90	10	11.6	1,387
濠 洲	760	175	—	—	23.0	
OECD計(1984)	38,972	8,534	3,352	1,264	30.2	
OECD計(1982)	41,245	7,562	2,698	912	24.3	

〈資料〉 OBG(1986)

註 : * (접촉분해 + 열분해 × 0.55 + 수소화분해 × 0.19) / 상압정제능력

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通産省은 최근 石油審議會 石油部會에 「석유산업기본문제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석유정책의 中長期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서는 생산·판매·제품수출입등에 관한 각종규제의 완화·철폐시기를 명시하고, 자유화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日本 석유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온 石油業法은 석유제품의 공급, 정제시설, 제품가격의 3가지 측면에서 석유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로 이용돼 왔다. 예를 들면, 석유수요가 대폭 신장되었던 제1차 석유위기 이전에는 石油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신·증설을 했기 때문에 通産省의 시설인가가 업계를 유도함으로써 그 위력을 발휘했다. 또 석유위기의 와중과 직후 제품별 공급량을 명시한 「석유공급계획」은 민수용, 산업용 가릴것 없이 모두 에너지안정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 石油業法에 규정된 「표준액」(실질적인 소비자가격)의 발동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石油業法도 최근의 석유정세의 변화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端的인 문제가 바로 석유회사 수익성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즉 86년 9월 중간결산결과 주요石油8社의 경상이익은 총 3백16억円이며,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로 제조업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와같은 日本석유산업의 저수익

성은 주로 시설과잉에 기인되고 있다. 현재 정제시설능력 5백만B/D중 1백50만B/D는 과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잉여시설은 폐기할 경우 환경호전의 가능성도 있으나, 판매력에 비해 정제능력이 적은 회사나, 반대로 정제시설은 갖고 있으나, 판매력이 미약한 회사가 있어 구조조정은 난항을 겪어왔다.

日本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내소요석유의 거의 수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日本시장이 원유공급선인 산유국이나 메이저(국제석유자본)에게 수익성있고 매력있는 곳으로 인식되지 못할 경우 안정공급의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석유정책을 전환, 자유화를 통해 석유산업의 기업체질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石油審議會 검토의 기본방향이다.

日本 석유정책흐름의 변화는 우리에게 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유산업이 국내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윤이 실현되고, 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정유산업의 당면문제는 정유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부문 전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또한 국가에너지공급비용과 총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